

벤젠 수출가격 급락에 자일렌 급등

한국은행, 10월 BTX 수출가격 혼조 ... 프로판·부탄은 10% 이상 상승

한국은행이 발표한 <10월 수출입물가 동향>에 따르면, 10월 수출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재료비 인상과 원/달러 환율 영향으로 9월보다 0.4% 올랐으나 2004년 10월에 비해서는 8.5%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수출물가는 2004년 12월 이후 11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.

석유제품은 허리케인 피해로 인한 멕시코만 지역의 공급 감소로 나프타, 프로판가스, 부탄가스 등이 올라 무려 4.7% 상승했고, 섬유제품은 원재료비 상승 및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상승으로 면사, 화섬직물, 부직포 등이 올라 1.6% 상승했다.

화학제품은 공급과잉으로 벤젠(Benzene) 등은 하락한 반면, 허리케인으로 인한 공급 감소 등으로 Xylene, AN(Acrylonitrile), 메탄올(Methanol) 등이 올라 2.9% 상승했다.

화학 관련제품 수출물가 등락률(2005.10)

(단위: %)

구 분	등락률	주요 등락품목 및 등락률
연료광물	-2.7	원유 -3.8, 액화천연가스 2.1
비철금속소재	3.8	동 6.7, 동광석 7.5, 금괴 4.4, 알루미늄괴 6.2, 니켈 -11.3
섬유제품	1.6	면사 1.9, 화섬직물 1.6, 부직포 1.6
석유제품	4.7	나프타 2.7, 방카C유 0.6, 프로판 14.9, 부탄 13.1
화학제품	2.9	Xylene 13.1, AN 8.2, 메탄올 6.7, EG 9.0, 벤젠 -10.3,

연료광물은 난방용 수요증가 전망으로 LPG는 올랐으나, 국제에너지기구(IEA), 석유수출국기구(OPEC) 등의 세계 석유 수요증가세 둔화 전망,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등의 영향으로 원유가가 내려 2.7% 하락했다.

비철금속소재는 재고 증가로 니켈, 주석은 내렸으나, 일부 광산파업 등에 따른 공급 감소로 동, 동광석, 알루미늄괴 등 대부분이 올라 3.8% 상승했다.

<화학저널 2005/11/14>